
		<b>보 도 자 료</b>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6월 17일(목) 총 6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문화유산과	담당자	• 무형문화유산팀장 홍미옥 ☎440-8081 • 담당자 김윤정 ☎440-8083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시, 코로나로 지친마음 전통예술공연으로 힐링

- 인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 만나는 <상설공연 ‘얼쑤’ > -  
 - 6.20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8회 공연 예정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주최하고 (사)한국국악협회 인천광역시지회(대표 유은자)가 주관하는 2021년 우리가락 우리마당 상설공연 ‘얼쑤’가 오는 6월 20일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야외공연장에서 시작된다.

‘얼쑤’ 공연은 시민 누구나 국악 등 전통예술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감흥을 느낄 수 있는 공연들로 꾸며져 이미 두터운 고객층을 형성하고 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야외공연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상설공연 ‘얼쑤’는 올해도 대중에게 친숙한 공연내용으로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할 예정이다.

6월 20일 오후 4시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 공연을 시작으로 소리꾼 오단해를 중심으로 해 다양한 연주자들이 공연하는 ‘이쯤에서 발악’, 전통 민요와 굿 음악을 소재로 선보이는 국악그룹 이상의 ‘어반풍류’, 한국의 절제된 아름다움과 비보이 액션이 어우러진 풍물패 더듬&경기민요의 ‘국악으로 하나되는 울림’, 박순아&여성룡의 ‘따뜻한 위로’, 박애리, 타여락의 ‘치유의 노래’, 남상일, 박민주의 ‘흥겹게 놀다가 SHOW’, 퓨전국악그룹 쿼의 ‘우리 소리로 그리는 이상향’을 선보일 예정이다.

직접 호흡하며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가능한 대면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단계별 인원을 제한해 거리두기 좌석제로 운영된다.

또한 방역소독, 발열 체크,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등 공연장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시민 안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상세한 공연 일정은 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화 문의는 한국국악협회 인천광역시지회(☎032-873-7772)로 하면 된다.

백민숙 시 문화유산과장은 “그동안 전통문화시설의 공연무대 활성화를 위해 이어온 전통예술공연 ‘얼쭈’ 사업이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많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걱정 없이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며 신명나게 공연을 즐길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붙임> 공연 포스터와 소개

참고

2021년 상설공연 '얼쑤' 메인포스터

[야외상설공연]

2021  
우리가락 우리마당

# 얼쑤

2021년  
6월 - 10월  
16:00-17:00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야외공연장

6월 20일 연희단 팔산대 / 신명나는 여성농악  
7월 04일 오단해 아트랩 / 어름에서 발악  
7월 11일 국악그룹 이상 / 어반풍류  
7월 18일 풍물패 더봄, 경기민요 / 국악으로 하나되는 올림  
9월 05일 박순아, 여성룡 / 따뜻한 위로  
9월 19일 박애리, 타악락(풍물) / 치유의 노래  
10월 17일 남상일, 박민주스토리 무용단 / 흥겹게 놀다가SHOW  
10월 31일 퓨전국악그룹 퀸 / 우리 소리로 그리는 이상향

| 주최 | 인천광역시  
| 주관 |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인천광역시립무예진흥원

## 참고

## 2021년 상설공연 '얼쑤' 공연 상세정보

### ○ 1회차 공연 - 연희단 팔산대(여성농악)



1960-70년대 이 땅을 유랑하며 예능을 펼치던 여성농악단을 복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011년 예능훈련을 시작하였고, 2012여수엑스포 공식단체로 지정되며 정식 활동을 시작했다. 소리와 춤, 풍물을 겸하는 종합 예능을 지향하며 현재 세계 각국의 무대와 축제마당에서 최고의 갈채를 받는 가무악단체다.

### ○ 2회차 공연 - 오단해 아트랩(이즘에서 발악)



소리꾼 오단해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연주자들이 모여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한 창작, 콘텐츠 제작 등의 작품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전통음악부터 타 장르와의 파격적인 협업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상상 이상의 감동을 현실 구현하여 전 세대와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양질의 문화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 ○ 3회차 공연 - 국악그룹 이상(어반풍류)



국악그룹 이상은 전통음악의 숨은 철학적 가치를 발견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중들이 공감과 위로를 받아갈 수 있는 내용의 공연을 만들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전통 민요와 굿 음악을 소재로, 그 속의 아름다움과 전통성을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할 계획이다.



○ 4회차 공연 - 풍물패 더듬 & 경기민요(국악으로 하나되는 울림)



한국의 절제된 아름다움과 비보이의 액션이 어우러진 퓨전공연팀으로 풍부한 공연 경험을 토대로 한국적인 퍼포먼스와 개인기술로 중무장된 팀, (사)한국국악협회 인천광역시지회로 인준 받았으며 인천지역의 전통문화 예술의 균형 있는 발전과 전승보전을 위한 다양한 공연활동과 국악경연대회 등 전개함으로써 민족 문화 예술의 정립에 기여함을 목적품물패 더너는 1992년에 창단하여 한국의 전통예술인 품물을 보급하고, 공연을 창작하고, 품물굿판을 만들어온 전문예술단체

○ 5회차 공연 - 박순아, 여성룡(따뜻한 위로)



2016, 2017, 2019 <여성룡의안해본소리>시리즈를 통해 전통의 소리에서 자신의 감각을 통해 현시대에 공감할 수 있는 전통의 계승과 창작의 실험을 이어가고 있는 악가무를 갖춘 예술가, 평양과 한국의 기억을 두 손에 담고 있는 그는 남쪽의 전통을 지키는 굳건한 뿌리와 북쪽의 자유를 향한 갈망의 뿌리를 하나로 엮어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었으며 이제는 다른 차원의 세계를 향하고 있다.

○ 6회차 공연 - 박애리.타여락(풍물)(치유의 노래)



1999년부터 2015년까지 국립창극단에 재직하며 춘향, 심청, 바리공주 등의 역할을 도맡아 주연배우로 활동했다.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와 노래싸움 - 승부 같은 음악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이름을 알렸다. 참고로 대장금의 OST인 ‘오나라’는 그녀가 부른 작품이다.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개막식에 출연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치유와 화합의 무대로서 스타명창 박애리의 전통 판소리 공연으로 시민들의 마음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이다.

○ 7회차 공연 - 남상일, 박민주 스토리무용단(흥겹게 놀다가SHOW)



국악인 남상일은 유쾌한 입담을 자랑하며 국악계의 아이돌로, 2007년 KBS 국악경연종합대상, 2010년 국회대상 올해의 국악상, 2012년 KBS 국악대상 판소리상 등 다양한 수상 경력과 함께 타고난 예능감각으로 TV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인기 국악인대한민국 대표 소리꾼 남상일과 인천광역시의 전통을 지키고, 대중화를 위해 표현력 넘치는 전통 무용의 공연을 만들어가는 박민주 스토리

○ 8회차 공연 - 퓨전국악 그룹 퀸(우리 소리로 그리는 이상향)



퓨전국악그룹 퀸은 기념치는2008년에 창단된 여성퓨전국악밴드로 멤버는 가야금, 거문고, 장구, 해금, 대금, 전자바이올린, 보컬(한국의 전통소리)로 이루어져있다.국악과 클래식, 영화음악, 팝, 재즈, 가요, 트로트등서로 다른 여러 장르를 크로스오버시켜우리의 국악을 좀 더 대중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위해노력하고, 남녀노소는 물론 외국인들과도함께 공감하고 호응할 수 음악K.pop열풍과더불어 해외공연 요청이 쇄도하고있다